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표트르크로포트킨과인민봉기

파리코뮌에서광주봉기까지

조지카피아티카스

조지카피아티카스
표트르크로포트킨과인민봉기
파리코뮌에서광주봉기까지
2003

Northeastern Anarchist #7, August 2003

kr.theanarchistlibrary.org

2003

차례

크로포트킨의혁명에대한개념	4
광주봉기	8
크로포트킨과광주	12
결론	15

결론

광주항쟁에대한이러한간략한발언을통해, 크로포트킨의사상이여전히새로운혁명적운동을만들어낼수있다는것을볼수있다. 수많은사람들의피와희생에서얻은그의분석의범주는현대의투쟁과밀접한관련이있다.

그의통찰이현대와도분명밀접한관련이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그의생각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것은어리석은일일것이다. 특히오류의비용이수천명의목숨이될수있을때, 혁명이론은이전의혁명물결의유산의의식하는동시에, 사람들에게그들자신의운명을창조할수있는힘을주어야한다.

다행히도, 크로포트킨의서술중오류로드러난것중하나의억압의피비린내나는집행인들은“절대로기소되지않는다”는것이였다 (『크로포트킨의혁명적인팸플렛』, p.138.). 놀랍게도 1987년 6월항쟁의승리이후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 (광주학살주모자) 은모두재판을받고수감되였다. 역사상그러한유혈사태의책임자들이책임지지않는경우는거의없었다. 앞으로기업의지배와전쟁, 군국주의라는현재의악몽을대신할자유, 번영이라는크로포트킨의꿈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보자.

크로포트킨은금남로집회에서차량을압수하자는요청에응한자들을팔레루아앞의군중들이죄수를석방시킨것과동일하게대했을것이다.

쿠데타를일으킬수있는기성무장조직이없었을뿐만아니라, 반란이 시작되었을때거의모든운동지도자들은체포되거나신해있었다. 5월 17일밤, 군정보요원과경찰은 시내전역의운동가들의집을급습하여운동지도부들을체포했다. 체포되지않은지도자들은은신했다. 김대웅을포함한민주화운동의국가적지도자들은이미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다음날아침, 사람들은자발적으로그들자신을조직했다. 그조직은수백명으로시작되어이윽고수천명이되었다.

조직의등장은상당히자연스럽게일어난것으로보인다. 그과정은모두에게명백했다. 정부조차공개적으로봉기를“공동체자치”라고지칭했다. 22일오전 10시 30분쯤복음주의목회자 8명이모여상황을진단했다. 그중한명은마침광주에있었던미국침례교선교사아놀드피터슨이었다. 그는나중에목회자들의평가를다음과같이술회했다.

“우리가공감했던감정은“이럴수는없다”는말로요약된다. 한도시의 시민들이의식적인계획이나지도부없이봉기하여정부를내쫓는것은전례가없는일이였다.”(피터슨, 49 페이지)

들불야학, 광대(연극활동가단체),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같은소수의기존단체들은일간지“투사회보”를발행하여, 이들은무장저항을강화하고고무시켰다. 그들은시장과더보수적인시의회의원들을압도하는데성공했다. 새롭게등장한무장투사들과연계하여다양한배경의전투적인개인들이하나로합쳐져하나의초점, 즉지속적인무력투쟁에헌신할수있도록하였다.

특기할만한사항으로, 이호전적인단체의많은회원들은이전에파리코뮌에대한연구모임에참여했는데, 그중일부는시인이자활동가인김남주와함께진행되었다(인터뷰, 1999년 11월 29일). 나는 2001년봉기참여자와 29차례인터뷰를진행했는데, 광주봉기이전동안파리코뮌에집중했던스터디그룹의일원이었음을나타내는사람이많았다. 윤상원(해방광주의핵심지도자중한명)은녹두서점에서열린 1976년김남주의파리코뮌연설에참석했다(인터뷰, 2001년 11월 7일). 봉기당시윤상원은대학내다른유력인사들과의토론에서파리코뮌에대해공개적으로언급했다(인터뷰, 2001년 6월 22일). 적어도십여명의다른핵심활동가들이파리코뮌을연구했다.

광주봉기에앞서활동가들이파리코뮌을연구한것은, 한봉기의유산이지역적차이를넘어간인이압제에대응하는다른봉기의동력이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심지어폭동이잔인하게진압될때에도 — 두경우모두그렇듯이 — 그경험은새로운욕망과새로운필요, 새로운두려움과새로운희망을만들어내고, 봉기의참가자들과그봉기가만들어낸파문에서있는이들의심장과정신에영향을준다.

표트르크로포트킨의공헌을마땅할만큼고평가하기위해서는그의사상을현대에맞추어추론하려는시도가필수적인것이다. 볼셰비키혁명의운명에관해이러한작업을하는것은쉬운일이다. 크로포트킨자신도볼셰비키혁명의발달과퇴행을분석할수있었다. 그러나 20세기후반의혁명운동전개에크로포트킨의사상을적용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일이다.

크로포트킨은현대의아나키즘적인사고방식에매우중요하지만, 그는여전히일부관심있는그룹밖에서는거의알려져있지않다. 대한민국에서광주는근대민주주의발전의중심이지만, 무려 2,000명의사람들이목숨을잃은 1980년의봉기는많은사람들이겨우이해하는수준에(혹은이해하지못하는수준에) 머물러있다. 두경우모두유럽중심주의에의해소외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는크로포트킨이러시아를떠나지않고같은책과문건을 썼다면오늘날러시아밖에서는그에대해거의알지못할것이라고단언할수있다.

우리는크로포트킨을여러가지로비판할수있다. 그중가장먼저비판되어야하는것은 1차세계대전의중전협약에대한지지이다. 그의유럽중심주의적편향또한마찬가지이다. 오늘에와서는『상호부조론』에서분석된해당방면에대한표현을읽을때, 우리는경악할수밖에없다. 그는“미개인”이나“야만인”과같은구식의언어를사용한다. 게다가『혁명의의회상』에서는“아시아적책략”, “... 혐오스러운오리엔트방식”그리고“오리엔트적향락은혐오시되었다”등의뼈뎡한표현들을발견할수있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은시대의변화에따라이러한편견들을극복할수있었으리라생각한다. 크로포트킨의시대에는이러한편견들이거의일반적이였다.

크로포트킨은어쨌거나국제주의자였다. 그가편집한스위스신문인「반역 Le Révolté」의역할에대하여, 그는다음과같이 썼다.

“새로운형태의삶을해결하려는시도로오래된불의에반대하는반란을일으키고, 인간의가슴을두근거리게하는것, 이것이혁명적인론의주된임무가되어야한다. 성공적인혁명을만드는것은절망이아니라희망이다.”(『혁명의의회상』, p.418.)

크로포트킨의혁명에대한개념

크로포트킨은러시아혁명과서유럽에서의그의경험을바탕으로프랑스의운동, 특히 1789 년에서 1793 년사이의혁명, 그리고 1871 년의파리코뮌과관련하여혁명에대한분석을발전시켰다. 크로포트킨에게자유코뮌은진정한혁명의중착점이자수단이되었다. 그는인민의책임과관리를앗아가고자하는대의제정부와그관료들을혐오했다. 그는장군들마냥자리에앉아가두투쟁에지침을내리는자들을수차례쏘아붙였다. (『혁명의회상』, p.282.) 오늘의시위중에는집에앉아있다가다음날이면활동가를위한“안내서”를써내던작자들에게그가뭐라말했는지는상상만할수있을뿐이다. 그는당대의무장시위에참여했고, 비겁함을운동내부에서극복할과제라고보았다 (『혁명의회상』, p.419.).

평범한사람들에대한크로포트킨의믿음은무궁무진했다. 그는프랑스혁명에서“파리의인민들이보여준자발적인조직”에감탄하면서, 도시의각구역이독자적인군사및시민위원회를선임하였지만, “저녁에열린총회에서중요한모든문제들이대중적으로언급되었다”고 썼다 (『프랑스대혁명』, p.313.). 크로포트킨은시간이지나면서이기구들이공공안전위원회의손발로변질되어가는것 (즉, 국가의기구가되어가는것) 을관찰한다. 40,000 개의혁명위원회가국가에의해삼켜졌을때, 혁명은살해당했다.

혁명운동으로목숨을잃은수천명의희생은진정한혁명의형태, 즉“자주적인코뮌”을크로포트킨에게보여주었다. 크로포트킨은여러저술을통해민주공화국과대의정부가기존의사회질서를모두혁파하기보다는개인의몫을향상시키기위해기존제도의개혁을원하는중산층급진주의자들의야망을충족시키는수단이라고이해했다 (『빵의쟁취』, pp.44, 213-14.). “대의제정부는그목적달성하여궁정의통치를중식시켰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 p.68.). “절대군주제는농노제도에대응한다. 대의정권은자본통치의제도에대응한다.”(『아나키즘적코뮌주의』, p.52.)

1871 년파리코뮌과관련하여자신의생각을발전시키면서다음과같이 썼다.

“파리코뮌의봉기는따라서모든진정한혁명을괴롭히는질문에해결책을가져왔다. 프랑스는 1793 년 ~1794 년, 강력한자코뱅초치를통해 l'egalite de fait, 즉진정한경제적평등을도입하려고했을때와그리

도청광장분수대주변에서는매일집회가열렸고, 그곳에서는민기가직접공식화됐다. 5 월 16 일‘민주광장’으로개칭한이공간은해방광주이전부터성스러운공간이었다. 수천명의사람들이평화롭게모일수있다는가능성은너무많은친구들과이웃들의피를통해얻은권리였다. 본능적으로광주사람들은광장을영적인고향으로인식하고, 수만명의사람들이매일그곳에모여들었다. 매일의집회는모두가발언권을갖는새로운종류의직접민주주의의배경이되었다. 여성들의공적역할은그들이겪었던일상적인종속성과는뚜렷한대조를이루었다. 많은사람들이진심어린욕구를표현할수있었다.

“그때부터분수대는이제통합의중심이였다. 여성노점상, 초등학교교사, 서로다른종교의신앙인, 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농부등모든계급의인민들이연설했다. 그들의성난연설은봉기의엄청난에너지의발현인공동의의식을만들어냈다. 그들은봉기기간내내강한연대감을형성하며함께물쳐져있었다. 그순간, 도시는하나였다.”(이재의, 『광주 5 월민중항쟁의기록: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p.105)

해방광주에서는 5 번의집회가있었고, 각각많은수가참석했다. 최초의대규모집회는군대가후퇴한다음날군대의패배를축하하기위해자발적으로조직된집회였다. 다음날 (23 일) 제 1 차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에서는군중이 15 만명으로불어났다. 대회는인민들이“우리의소원은통일”을노래하는것으로막을내렸다. 5 월 24 일에는 10 만명이상이모였고, 5 월 25 일에는 5 만명 (수습위원회사퇴요구), 5 월 26 일마지막집회가끝난뒤에는 3 만명이모였다. 이마지막집회에서새로운구국과도정부救國過渡政府에대한요구가나왔다.

(3) 자발적조직

전투의열기속에서발현하고, 도시를운영하고, 그리고군대의반격에대한최후의저항에까지, 자발적으로등장한자기조직의능력은새로운눈을뜨이게한다. 20 세기후반이라는시기적조건속에서, 높은문해율(文解率과언론, 그리고보편교육 (남한의모든남성이받은군사교육을포함한다) 은그어떤권력의중추에자리잡은조그만엘리트집단이통치하는것보다도, 수백만민중이스스로를통치하는것이더욱현명할수있게끔한다. 우리는광주봉기의사건들을통해자치를위한이러한자발적인능력 (엘리트통치의치명적인부조리와함께) 을관찰할수있다.

광주에서는파리국가수비대와같이권력에대한공격을선도하는기성무장단체가없었다. 오히려공수부대원들의잔혹성에대한자발적인저항의과정이가상황에맞선인민들을앞으로몰아붙였다. 많은사람들이전의정치적경험이거의없거나전혀없었다. 몇몇은정규교육을거의받지못하거나받지않았다. 모든것은역사적사건의전개라는구체적인맥락에서나타났다. 해방광주는정부의강요나정당의한계획없이조직되었다.

크로포트킨과광주

광주봉기는크로포트킨의분석틀을세가지방법으로검증하고있다.

(1) 독립적코뮌과자산의자유로운분배

5월 21일군대가도시에서쫓겨난후, 모든사람들은기쁨과안도를나누었다. 시장과상점이다시문을열어영업을시작했고, 평상시처럼음식, 물, 전기등을이용할수있었다. 어떤은행도약탈당하지않았고강도, 강간, 절도와같은일반적범죄는거의일어나지않았다. 관楫과가솔린, 담배는품귀했다. 어떤사람들은군대에서더많은관을조달하려고시도했고, 시민군은휘발유를배급했고, 사람들은새로참가한무장한동료들과함께담배를나누어피웠다. 어떤사람들에게는, 담배를공유하는것은공동체경험의중요한부분을상징적으로드러냈다. 여전히담배를갖고있는가게주인들은 (모두에게공평하게돌아가도록) 한번에한갑씩팔거나나눠주는경우가많았다. 병원에서는혈액공급이부족했지만, 필요성이알려지자마자사람들이몰려들어헌혈했다. 어느순간부터는술집작부들과매춘부들역시자신들에게도헌혈을허용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주장하여헌혈하였다. 기부를통해수천달러가빠르게모금되었다. 이모든에는도시전체가얼마나놀라울정도로단결하였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며칠동안시민들은자발적으로거리를청소하고, 밥을짓고, 시장에서 무료급식을제공하며, 예상되는반격을경계했다. 모두가해방광주에 기여하고자신의역할을찾았다. 자발적으로새로운분업이나타났다. 시민군들이야말로책임감의표상이었다. 사람들은이민병대를“시민군”또는 “우리의동지”라고불렀다. 그들은민중을보호하고그들을돌보았다. 세계전역의군대에서하는것과같은, 괴물같은행동을유도하는세뇌나군사적광기도없이, 시민군의남녀들은모범적인방식으로행동했다. 대중의 요구에따라새로운형태의질서를구성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았다. 그들은모든중·고등학생들을무장해제시켰고, 이는투사회보가책임을지고 집행했다 (이재의, 『광주 5월민중항쟁의기록: 죽음을넘어서대어의둑을넘어』, p.71). 최후의공격이임박하자지도부에서는무장세력중고등학생들이살아남아투쟁을계속할수있도록귀향하라고주장했다. 많은 시위를거친젊은투사들은눈물을흘리면서떠났다.

(2) 대의제정부가아닌민주광장에서의회가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는것

고 1848년“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실시하려고했을때의두번에걸쳐일종의사회주의혁명을시도했고, 그방식은중앙정부를통해그것을강제하는것이였다. 그리고그시도는매번실패하여왔지만, 이제새로운해결책이제시되였다: 자유코뮌은그들자신의영역에서혁명을해내야만한다.”(『현대과학과아나키즘』, p.164.)

크로포트킨에게자유사회의정치적형태는분명히독립적코뮌이였다. “독립적코뮌이야말로사회혁명이반드시취해야할형태다. 모든나라와전세계가그것에반대할것이다. 그러나일단그구성원들이물품의소비, 교환, 생산을공동화하기로결정하면, 그들은스스로깨달을것이다”(『현대과학과아나키즘』, p.164.) 크로포트킨은파리코뮌과카르타헤나, 바르셀로나코뮌에대한이해에서코뮌의의미를정치적형태로구체화하여미래에투영했다.

“운동자체뿐아니라코뮌혁명이정신에남긴인상과그경향을분석할때, 우리는그속에서미래의사회발전과정에서는더진보된인간의집단이독립적인삶을시작하려고노력할것이라는징후를인식해야한다. 그리고이집단은국가내의후진적부분을선진화하기위하여법과무력으로그들의의견을강요하거나, 실제로는중위결 (좌파는우경화되고우파는좌경화되어야당선인만을만들수있다는다수결의원칙-역자주) 이될수밖에없는다수결의원칙에기대는것이아니라, 더 나은예시를만들어낼것이다. 동시에코뮌내의대의제정권의실패는단순히영토를넓히기보다는자치와자율행정이더진전되어야한다는것을입증한다. 자치와자율행정이효과적이되기위해, 그것들역시자유로운공동체안에서삶의다양한기능에포함되어야한다.”(『아나키즘적코뮌주의』, pp.51-2.)

후기작품에서크로포트킨은 1871년이후“... 자유코뮌은그이후현대사회주의사상이실현될수있는매개체가될것”이라고선언했다. 그리고『상호부조론』에서, 그는진화와인간사에서코뮌적협력이 가져왔던 형태를추적한다.

1917년이후그는다시러시아로이주했다. 볼셰비키에대해서는비판적이었음에도그는러시아로파병된반혁명적외국군을깎아내리는것을 목적으로한혁명에관한짧은성명두장만을발표했다. 그러나그는자유코뮌에대한지지를다시한번표명했다.

“러시아제국에서자연적으로분리된부분을중앙통제하에재결합하려는모든노력은실패하기마련이다. 나는이연방의각부분이 스스로자유코뮌과자유도시의연합이될때가올것이라고본다. 그리고나는또한서유럽의특정지역이곧같은과정을따를것이라고믿는다.”(크로포트킨, 〈서유럽의노동자들에게보내는편지〉)

당대의모든혁명과관련하여, 그는독립된코뮌의형태로드러나는진정한자유를그목표로확립했다. 하지만사람들은이목표를어떻게달성할수있었을까? 어떤수단이사용될수있었는가? 크로포트킨에게있어대답

은 명확했다. 봉기가 그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전위당이 아니라 어떤 조직된 작은 집단이 아니라 인민 스스로가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기와 자유코뮌은 크로포트킨에게 필수적이었다. 대중동원을 위해서는 중앙의 집회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었다.

“팔레루아 앞은 정원과 카페를 갖춘 개방된 공간이 되었고, 모든 계급 출신의 수만 명이 매일 소식을 교환하고, 그 시간의 팸플릿에 대해 토론하고, 군중들 속에서 미래의 행동에 대한 열망을 새롭게 하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고 했다.”(『프랑스대혁명』, p.61.)

대중동원을 위한 집회소가 중요성을 드러낸 한 예는 1789년 6월 10일이었다. 파리지민들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총을 장전하는 것을 거부한 11명의 군인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시 팔레루아 앞에서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갔다. 그런 대군을 보고 간수들은 호응했고, 군중을 막기 위해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달려간 용기병들은 재빨리 군도를 벗고 인민들의 대오에 합류했다.(『프랑스대혁명』, p.69.)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호전성에 감탄하면서, 크로포트킨은 가게를 장악하고 있는 군중들은 약탈을 하지 않고 그들의 집단적인 영양보충과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면서도 독질은 끝났다고 언급했다(『프랑스대혁명』, pp.75, 106.). 반란이 파리에서 프랑스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유럽은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움직였다”고 크로포트킨은 그 반란이 어떻게 프랑스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단결시켰는지 추적했다(『프랑스대혁명』, pp.95, 177.).

1871년 파리 코뮌이 이후 스페인의 카르타헤나와 바르셀로나에서 비슷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는 봉기 자체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고무시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 현상을 에로스 효과라고 이해한다.(내 책 『신좌파의 상상력: 1968년에 대한 세계적 분석』을 참조하라) 크로포트킨은 봉기는 종종 절망의 산물이지만 혁명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이 파업을 일으키거나 그들이 싫어하는 일부 관료들에 대한 작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성공에 대한 희망도 없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번, 두번, 아니 수십번이 아니라 수백번의 유사한 반란이 앞서 왔으며 모든 혁명에 선행해야 한다. 이것들이 없이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그는 이후에 봉기가 혁명의 종착점을 결정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열쇠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의 성격은 그것이 선행하는 봉기의 성격과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으로 명시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제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1980년 광주항쟁으로 눈을 돌린다. 1980년대 한국과 아시아

이 되자 군대는 후퇴했고, 오후 8시에 되자 인민들이 도시를 통제했다. 여기자서화호성이 울려 퍼졌다. 비록 그들의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무기는 군대의 무기에 비해 훨씬 열세였지만, 사람들의 용맹과 희생은 군대의 기술적 우월성보다 더 강력한 힘을 증명했다. 자유코뮌은 6일간 지속되었다. 매일의 시민 집회에서는 수년 동안 지속된 좌절과 일반인들의 깊은 열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시민 단체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행정, 즉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사회 행정을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파리 코뮌이 100년 전에 파괴된 바로 그 날인 5월 27일, 광주 코뮌은 영웅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진압되었다. 1980년에 잔인하게 진압되었지만, 그 후 7년 동안 그들은 계속 투쟁했고, 1987년에 마침내 남한의 민주적인 선거 개혁을 쟁취하는 전국적인 봉기가 조직되었다.

전함포템킨의 수병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민중들은 1894년 동학 반란과 1929년 학생 반란에서 1980년 봉기에 이르기까지 남한에 혁명의 도래를 거듭 예고했다. 파리 코뮌이나 전함포템킨처럼 광주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적(또는 프랑스적, 또는 러시아적) 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광주의 의미와 교환은 동서 남북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초기 혁명의 상징처럼 1980년 민중 봉기는 전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왔다.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민주적 기본권이 억압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반란과 폭동의 물결이 그 지역을 변화시켰다. 유럽의 1989년 혁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 중심주의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광주 봉기 이후 6년 만에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가 타도되었다. 아키노와 김대중이 미국에서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광주의 경험은 마닐라에서의 행동에 영감을 주었다.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나타났다. 1987년 대만에서는 계엄령의 종결을 쟁취했다. 버마에서는 1988년 3월에 민중 운동이 폭발하여 학생들과 소수 민족들이 랑군 거리로 나왔다. 끔찍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네윈 대통령이 26년간의 통치 끝에 사임하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해, 중국의 학생 운동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들의 외침을 활성화시켰지만, 천안문 광장에서 격추되고 그 후 그들은 몇 년 동안 쫓겼다. 네팔이 그 다음 차례였다. 1990년 4월부터 시작된 7주간의 시위는 국왕이 정부를 민주화하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 폭발을 경험한 나라는 태국으로, 1992년 5월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의 20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군부가 거리 시위를 진압했을 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잔혹성 때문에 수신다 크라파윤 장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은 “인민-권력 혁명”을 요구했고 수하르토를 전복시킬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에서 미국 특파원이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인민-권력의 구호는 공공 공간 점령의 전술적 혁신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차용되었다고 이야기되었다.

“오전 1 시에시민들이세무서로몰려가집기를부수고불을질렀다. 인민의생명과복지를위해서야할세금이군대와사람을죽이고때릴무기생산에쓰였다는이유였다. 경찰서와다른건물은지키면서방송국과세무서에불을지른것은매우이례적인경우였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38)

세무서와언론사건물 2 곳외에노동청과도청차고, 경찰차량 16 대가불에타다. 새벽 4 시쯤기차역에서벌어진마지막전투는격렬했다. 병사들은다시군중을상대로 M-16 을사용했고, 선두에선많은사람들을죽였다. 다른사람들은그시체위에서군대와의원투를계속했다. 믿을수없는용기를보여준인민이우세했고, 군대는급하게퇴각할수밖에없었다.

다음날 (21 일) 오전 9 시, 금남로에는다시 10 만명이넘는인파가공수부대와대치했다. 한소규모단체는“일부사람들이아시아자동차 (군납업체) 에가서차량을압수해야한다”고외쳤다. 수십명의사람들이이를행했고, 운전할줄아는사람의수에맞추어 7 대를가져왔다. 더많은운전자들이오가면서, 공장갑차들을포함한 350 대의차량이민중의손에들어갔다. 이차량을몰고시내곳곳을돌아다니면서시위자들은민중들을결집시켰고또한이웃마을을돌면서반란을확산시켰다. 몇몇트럭들은코카콜라공장에서빵과음료수를가져왔다. 협상가들은군중중에서선발되어군대로향했다. 갑자기총성이이분위기를뚫고들어왔고, 평화로운합의에대한희망을끝냈다. 10 분동안군대는무차별사격을가했고, 이대학살에서수십명이숨지고 500 여명이다쳤다.

사람들은재빨리반응했다. 충격이발생한지 2 시간도채지나지않아첫번째경찰서가무기를압수당했다. 더많은사람들이행동팀을구성하고경찰과예비군병기고를급습하여두개의중심지점에집결했다. 화순광부들의도움으로시위대는다량의다이너마이트와기폭장치를확보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43). 여성섬유노동자들은버스 7 대로나주로가서수백개의소총과탄약을확보하여광주로다시가져왔다.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에서도비슷한무기탈취가일어났다. 이운동은화순, 나주, 함평, 영암, 강진, 무안, 해남, 목포등한국남서부의 16 개지역으로빠르게확산되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64). 반란의급속한확산은자치와자주에대한인민의역량을보여주는또다른신호였다. 일부시위대는봉기를전주와서울로확산하기를희망하며출발했으나고속도로와도로, 철도를봉쇄한군대에의해퇴각당했다. 광주로향하던화순군과용광군의무장시위대는군헬기가처리했다. 군이언론을그렇게엄격하게통제하고여행을제한하지않았다면반란은전국적인봉기로변했을지도모른다.

뜨거운열기속에서, 시에존재했던그어떤정권보다더민주적인구조가탄생했다. 광주공원과유동분기점에서모여전투부대와지도부를구성했다. 기관총이도청 (군지휘부가있던곳) 에실려왔다. 오후 5 시 30 분

민주화운동에중심적중요성을지녔음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은광주항쟁에대해잘알지못한다. 나는먼저간단한요약을할것이고, 그후에내가자유교원과폭동에대한크로포트킨의견해에특히중요한봉기의요소들을묘사할것이다.

근본적으로인도주의자였던크로포트킨은봉기할만큼용기있던이들이마주해야했던죽음과부패에대해이해하였다. 그는투옥과추방에도불구하고자본의통치에대한자신의원칙적인반대를유지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았고, 다른사람들의희생이잇히는것을거부했다. 정부의잔혹성에대한그의설명을읽다보면, 그것이파리에서일어났는지광주에서일어났는지구별하기가어렵다.

“무엇을하든지너는죽을것이다! 팔짱을끼고끌려간다면, 죽을것이다! 자비를구걸하면, 죽을것이다! 어느쪽으로가든,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위로, 아래로, 어디로가건, 죽을것이다! 너는단지무법자가아니라인간이아니다. 네가몇살이건간에, 성별이무엇이건간에, 그것은너를구할수없다. 너는죽을것이다. 하지만죽기전에먼저아내, 누이, 아들, 딸들, 심지어는요람에있는아기가괴로워하는고통을맞보게될것이다! 네눈앞에부상자가구급차에서끌려나와총검에찍이거나개머리판에맞아쓰러질것이다. 그는부러진다리나피를흘리는팔에의지하여살아서, 고통스럽고신음하는쓰레기다발처럼시궁창에던져넣어질것이다. 죽음! 죽음! 죽음!”(크로포트킨, 〈파리코뮌〉, 1895 년)

광주봉기

지난 2 세기 동안, 1871 년의 파리코뮌과 1980 년의 광주민중봉기라는 두 사건은 수천 명의 일반인들이 자발적인 능력으로 스스로를 다스린 독특한 봉화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두 도시 모두 비무장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잘 무장된 군대의 존재에 맞서 도시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보유했다. 수십 만의 인민이 봉기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정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중기관을 구성하였다. 해방의 기간 동안 범죄율이 급감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친밀감을 느꼈다.

파리와 광주에 있는 코뮌의 해방된 현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그렇기에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널리 전파된 신화와 모순된다. 오히려 이러한 해방의 순간 동안 시민들의 행동은 자치와 협력의 선천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엄청난 잔혹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정부의 무력이었지, 통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이후 광주에서 의사건들이 전개되었다. 박정희의 죽음이 가져다 준 행복감 속에서 학생들은 거대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지만 전두환 장군은 권력을 장악하고 시위가 계속되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 위협했다. 광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렀다. 미국의 승인을 얻어, 새군사정부는 비무장 지대의 최전선에서 광주에 교훈을 주기 위해 가장 노련한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했다. 이들 부대는 광주에도 달한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18 일 오전 열린 1 차 대치에서는 특수설계된 진압봉으로 무방비 상태의 학생들의 머리를 깨트렸다. 시위대가 안전을 위해 발버둥을 치자 공수부대원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한 무리의 군대가 각각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의 등을 짓밟고,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곤 했다. 그들이 공격을 마쳤을 때, 그들 미트소스에 담긴 옷 더미처럼 보였다.”(이재의 외, 『광주 5 월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46) 시위대는 트럭에 부려졌고, 거기서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때리고 발로 찼다. 밤이 되자 공수부대원들은 몇몇 대학에 병영을 차렸다.

학생들이 맞서 싸우자 군인들은 총검을 겨누고 수십 명을 더 체포했고, 그들 중 다수는 벌거벗겨졌고, 강간당했고, 더더욱 잔혹한 일을 당했다. 한 병사는 붙잡힌 학생들에게 총검을 휘두르며 “이것은 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콩여인들의 젖가슴 40 개를 베던 총검이다!”라고 외쳤다. 공수부대의 과잉반응에 전체 대중이 충격에 빠졌다. 공수부대원들은 통제 불능이 되어 사람들을 잔혹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경찰서 정보국장을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다 (이재의 외, 『광주 5 월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79).

심한 구타와 수백 명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다시 뭉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다음 날 시 전체가 봉기했고 각 계층의 사람들의 시위대는 학생의 수를 적어보이게 할 정도로 불어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p.127). 대중운동의 자발적 탄생은, 도시와 비도시의 전통적 분열을 초월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등, 냉담한 잔혹성에 다시 한번의 지했다. 심지어 부상자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도 칼에 찔리고, 구타를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다. 몇몇 경찰들은 몰래 포로를 풀어주려 했고 그들 역시 총검을 맞았다 (이재의 외, 『광주 5 월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113). 많은 경찰들이 그 저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서장은 군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들에게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사람들은 돌, 몽둥이, 칼, 파이프, 쇠창살, 망치로 18,000 명의 전경과 3,000 명이상의 공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저항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도시는 침묵하기를 거부했다. 5 월 20 일, “투사회보”라는 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공식 언론과 달리 정확한 소식을 제공했다. 오후 5 시 50 분, 5,000 여명의 군중이 경찰바리케이드를 넘어 몰려들었다. 공수부대가 그들을 다시 몰아세우자 도로 위에 다시 연좌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찰들을 군대와 더 갈라놓을 대표자들을 선발했다. 저녁이 되자 당시 인구가 70 만 명인 도시에 20 만 명이상의 대오가 모였다. 거대한 군중은 노동자, 농부, 학생들, 그리고 각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9 대의 버스와 200 대가 넘는 택시들이 시내 쇼핑지역인 금남로에서 대오를 선도했다. 다시 한번 공수부대원들이 맹렬히 공격했고, 이번에는 온 도시가 반격했다. 밤 사이에 승용차와 지프, 택시 등 차량들이 불이 붙은 채로 군대로 밀고 들어갔다. 군대는 거듭 공격했지만 저녁에는 민주광장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기차역에서는 많은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민주광장과 인접한 도청에서는 공수부대원들이 M-16 으로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검열된 언론은 그 학살을 보도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기물 파괴와 경미한 경찰행위에 대한 허위 보도를 보도했다. 군대의 잔혹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야 뉴스마저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MBC 건물에 위유했다. 곧 방송국 경영진과 이를 지키는 군대가 후퇴하고, 군중은 안으로 밀려들었다. 방송 시설을 가동시킬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건물을 불태웠다. 군중들은 영리하게 표적을 선정했다.